내 손 안에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GPM
GOSPEL PRAYER MEDIA
왕하 2:21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기도신문

한국어판 www.gpnews.org
영어판 gpnews.org/english
일어판 gpnews.org/japanese
중어판 gpnews.org/chinese

iPhone Google Play

2010. 10. 3 창간

Merry Christmas

2024. 12. 22 ~ 2025. 1. 11 제310호

미국, 트럼프 당선 이후 사회 전반에 보수 정책 강화돼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차기 대통령 당선 이후 기업들의 엘지비티(LGBT) 중심의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 철회,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교육과정에 포함하기로 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보수적 가치에 기초한 정책이 잇따라 채택되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 공립학교와 공공장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In God We Trust)'는 국가 표어를 게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웨스트버지니아주는 2024년 공립학교에 국가 표어 게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루이지애나주는 2023년,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해당 문구 게시를 의무화했다. 텍사스와 사우스다코타 등도 이와 비슷한 정책을 채택했다.

또한 미국 전역의 공립학교에서 운영 중인 굿뉴스클럽이 하와이주 내 모든 학군 공립학교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영구적으로 확보했다. 앞서 올해 초, 하와이의 4개 학군은 세속 단체들의 학교 시설 사용은 허용하면서도 굿뉴스클럽의 학교 내 모임을 막아, 법적 소송 끝에 최근 법원이 굿뉴스클럽의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굿뉴스클럽은 어린이전도협회(CEF)가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주로 5세에서 12세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성경 이야기, 성경 암송, 찬양, 게임 등의 활동을 통해 기독교 가르침을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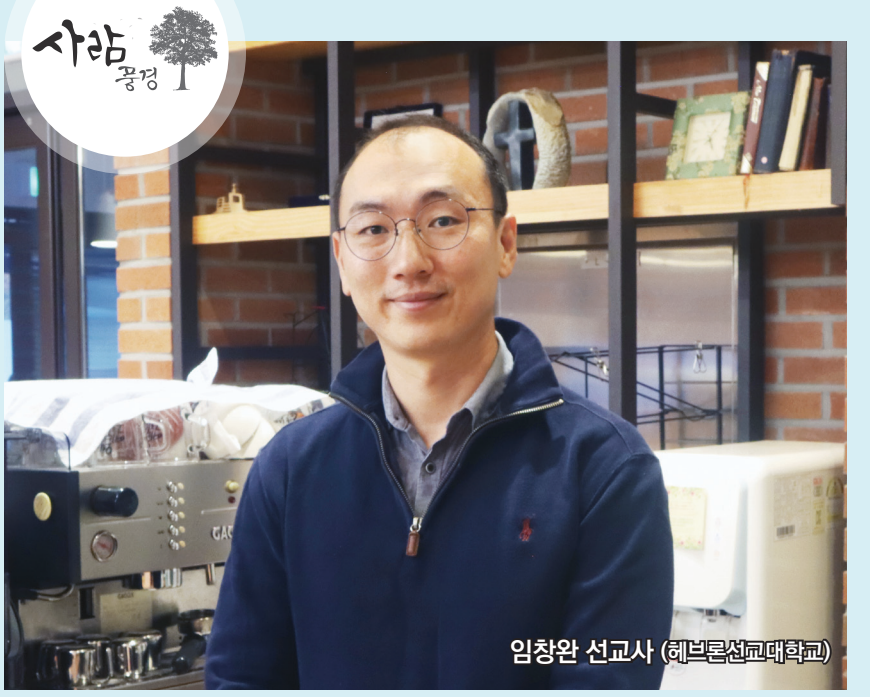
또한 미국 텍사스 공립학교는 지난 11월 22일, 교육과정에서 성경을 포함하도록 하는 주 정부 교육과정 '블루보넷 러닝(Bluebonnet Learning, BL)'을 채택하기로 했다. BL에 포함된 성경 자료는 선택 사항이다. 이 교육과정은 역사와 사회 과목 같은 다른 학문에서 개념을 발전시키거나 고착화하기 위해 독해와 언어예술 수업을 활용하는 교차 학문적 접근법으로 설계됐다.

한편, 미국의 기업들이 LGBT 의제를 추진해오던 DEI 정책을 철회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대형 유통체인 월마트가 인권 캠페인(Human Rights Campaign, HRC)의 기업 평등 지수(Corporate Equality Index)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 지수는 미국 브랜드 내 LGBT 의제를 강하게 추진해 온 주요 도구로 평가받고 있다. 월마트는 △시장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전환 및 성적 콘텐츠 제품을 제거하고 △부적절한 성적 콘텐츠를 포함한 프라이드 행사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GPNEWS]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사람 꽃경



임창완 선교사 (헤브론선교대학교)

"고난 통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알았어요"

미니 인터뷰 영상

아이들 밥을 챙기고, 빨래를 하고, 아이들과 놀아주고, 아플 땐 병원을 데리고 가고, 아이들을 씻기고 재우기까지, 평범한 엄마의 일상처럼 보이는 삶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아빠 임창완 선교사. 성경을 잘 가르쳐보겠노라 헌신했던 헤브론선교대학교에서 결혼 7년 만에 얻은 쌍둥이의 조산과 아내의 발목과 무릎 부상으로 육아를 감당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고 있는 임 선교사의 이야기를 청취했다.

• 4면에 계속

마음의 눈을 밝히사 (93)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은 이유

일러스트=A.I 제작, Midjourney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 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네 아들 곧 네가 사랑하는 네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네게 일러 주는 산들 가운데 하나에서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라"(창세기 22:1~2 KJV)

이 장면은 그리 복잡한 상황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신 장면이다.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이라고 하신 것이다. 그 명령은 간단해 보이지만 그대로 시행하기란 전혀 간단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그의 외아들임을 상기시키셨다. 이 외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 얻은 아들이요, 창대한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받은 후손이었다. 게다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여러 번 확인해 주셨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고 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진단 말인가?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을 잠시 당황하게 했을 수 있다. 아브라함은 당시 다른 나라에서 아이를 죽여 제사하던 풍습에 대해서도 들었을 것이다. 사람을 제물로 쓰는 것은,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길 때 하는 행위였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가 알고 있던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맞지 않아 보였을지도 모른다.

더욱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수많은 후손을 약속하시지 않았던가? 이미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과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조화시킬 방법은 없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일관성이 없으시단 말인가?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조금도 요동함이 없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하여 제사 도구를 나귀 등에 실은 다음, 아들 이삭을 데리고 길을 나섰다. 그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걸음은, 후에 알겠지만, 우리 인류를 위한 위대한 걸음이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선하신 하나님께 절대적인 믿음을 보여드렸다.

성경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나름대로 추측하도록 놔두지 않고,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명확히 가르쳐 주고 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있었다고 말한다. 곧 자신이 이삭을 죽여 제물로 바친다 해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 주실 것으로 확신했다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히브리서 11:17,19) [GPNEWS]

엠마오 길에서 만난 사람 (존 크로스.엔티엠 출판부. 2006)에서 발췌

복음기도신문?

전도현장에 사용되며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열독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는

신문입니다

구독신청 및 동역 문의

010-6326-4641

포토뉴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생생한 복음 되기를...

▲ 성탄절을 맞아 스웨덴의 한 교회에 장식된 아기 예수 탄생 모형. WMM 제공

스웨덴의 한 교회에 장식된 아기 예수 탄생 모형이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온 아기 예수,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인 구원자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는 동방 박사와 목자들,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 소식을 알린 천사와 동방 박사를 인도해 온 별,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 그 어느 하나도 빠질 수 없는 성탄의 풍경을 섬세하고 정교한 미니어처로 표현해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이 혹시 실물과 같은 모양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작은 미니어처처럼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아닐까? 미니어처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성탄의 기쁜 소식은 갱단 관련 살인이 급증하고 15세 이하 어린이를 살인 청부업자로 모집하는 스웨덴에 들려져야 한다. 그리고 죄의 쓰나미에 밀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영원한 멸망으로 치닫는 열방의 모든 영혼들에게도. 복음의 기쁜 소식이 온 열방, 모든 민족에게 생생하게 들려져 구원을 얻게 하소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눅 2:11) [G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궐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美 오하이오주, 공립학교서 성별 따른 화장실 사용법 통과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자신이 선호하는 성 정체성' 대신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화장실 등 기타 개인 공간을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 4일 통과됐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전했다. 법안은 "화장실, 라커룸, 샤워실 등을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어떤 학교도 자신이 선호하는 성 정체성에 따라 사용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또 "남학생과 여학생의 숙박시설 공유도 허용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신이 선호하는 성 정체성이 진짜인 것처럼 속이는 사탄의 간계를 파해주시고, 이 땅이 진리 안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소서.

유엔, 전 세계 3억 명 인도적 지원 필요

유엔은 내년 전 세계적으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인구가 3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며 국제사회에 긴급 구호 자금 지원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고 연합뉴스가 지난 4일 전했다. 유엔 인도적업무조정실(OCHA)은 이날 "전 세계 3억 500만 명 정도가 내년에 인도적 지원 필요 인구가 될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려면 글로벌 연대가 요구되며 대담한 정치적 행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나님,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3억 명이 넘는 자들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다른 무엇보다 복음을 들려주셔서 주를 만나는 참된 복을 얻게 하소서.

韓 청소년 75%, 중학교 입학 전 유해 영상물 접해

우리나라 청소년의 75%가 중학교 입학 전 유해 영상물을 접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고 연합뉴스가 지난 5일 전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개최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시대, 등급분류 미래를 논하다.'라는 포럼에서 박세진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교수는 최근 1년 동안 유해 영상물 시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23.6%이며 처음 접하는 시점은 75%가 중학교 입학 전이라고 밝혔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다음세대에게 복음을 들려주사 진정한 만족과 기쁨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세대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GPNEWS]

박해감시단체들, 시리아 내 기독교인 심각한 위기 경고

시리아가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의 정권 붕괴 이후 불확실에 빠지면서, 반군 세력의 공격이 이어지며 기독교인과 소수종교 집단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박해감시단체들이 경고했다.

페이스와이어에 따르면, 정권 붕괴를 앞두고, 글로벌 크리스천 릴리프(Global Christian Relief)의 데이비드 커리 회장은 지지자들에게 보낸 긴급 이메일을 통해 기독교인들이 "또다시 전쟁의 십자포화 속에 갇혔다."고 전했다. 이미 수천 명이 집을 떠나야 했고 도로는 폐쇄됐으며 난민 캠프는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집에 갇힌 상태라고 덧붙였다.

시리아 반군이 다마스쿠스에 진입하고 알아사드가 가족과 함께 국외로 도피했다는 보도가 나온 후, 커리 회장은 "이른바 반군 세력인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HTS)은 아이시스(ISIS, 이슬람국가)와 알카에다 전투원들로 재편된 집단에 불과하다."며 "테러 조직으로 간주되는 이들은 불과 2주 만에 시리아 북서부, 알레포와 그 너머를 포함해 쿠르드족과 기독교인들을 인종 청소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러한 공포의 지배가 시리아 다른 지역들로 확산될 것이라면서 "2011년 시리아에서 내전이 발발했을 당시, 기독교인은 약 10%를 차지했으며, 약 150만 명에 달했다. 수년간 지속된 전투와 지하드 급진주의자들의 박해 이후, 그 숫자는 고작 30만 명으로 줄어들었고 이제 쿠르드족과 기독교인들을 위한 안전한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한 인터내셔널크리스천컨선(ICC)도 시리아 내 종교적 소수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극심한 인권 침해와 박해를 일상적으로 겪고 있다고 말했다. ICC는 "알아사드가 대부분의 권력을 쥐고 있는 남부 지역에서 기독교인과 다른 종교 집단의 상황은 심각하지만, 튀르키예의 지원을 받는 테러리스트들이 여전히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싸우며 쿠르드족과 야지디 종교 공동체에 대해 끔찍한 폭력을 자행하는 북부 지역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HTS가 장악한 이후 많은 기독교인들이 시리아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ICC의 대표인 제프 킹은 앞으로의 짧은 시간 동안 시리아 내 기독교 공동체의 생존 여부와 미래가 결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국제기독연대(CSI)는 HTS가 최근 소수 집단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겠다고 주장했지만 "외교적 수사 뒤에는 치명적인 위험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CSI는 HTS가 지난주 알레포를 장악한 이후 기독교인과 다른 집단을 잘 대우한 것으로 보이지만, 과거는 같은 패턴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CSI는 "HTS의 이념에서 기독교인들은 이단이 아닌 하위 보호 계층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시리아 전역에서 기독교인들을 폭력적으로 표적 삼아왔고, 반복적으로 기독교 민간인들을 살해하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했다."며 "2012년 이후, HTS의 통치하에 알레포나 이들리브에 살았던 기독교인의 대다수는 도피했다."고 전했다. CSI는 기독교인들이 시리아 내 다른 지역에서도 HTS에 의한 폭행을 경험했으며, 납치, 폭탄 테러, 다른 폭력 행위들이 지속됐다고 전했다. [GPNEWS]

예수교회 회복 선언문 발표

복음기도신문

예수교회 회복을 위한 원데이 기도컨퍼런스를 주관한 복음기도동맹 사무국은 대회 당일인 지난 5일 교회 회복을 소망하며 성경이 말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임무를 담은 예수교회 회복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선언문은 이를 제정하게 된 배경과 교회의 정의, 우리의 임무, 가치선언, 신앙고백 등으로 구성됐다.

선언문은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예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외면한 채, 종교 시스템과 교권 제도화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이제 이러한 현실을 근본부터 변화시키고,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함께 일어나야 할 때"라는 현실이 선언문을 마련하게 된 배경임을 밝혔다.

또한 교회의 본질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특정 인물이나 시스템에 대한 우상화가 만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피흘려 세운 한국교회가 그 복음의 터 위에서 옷을 찢듯 마음을 찢으며 함께 통회의 눈물을 뿌리며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회 정의〉를 통해 △예수님이 곧 교회시며 △예수님이 교회의 모든 것이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시작과 끝이며 △예수교회는 예수님으로 살아간다는 주제문과 그 해설을 담았다.

〈우리의 임무〉에서는 △마음 지킴 △성경 수호 △예수 믿음 △제자화 △복음 중심적 삶 △예배드림 △복음의 연합과 교제 △선교 완성을 위해 순종의 삶을 드릴 것을 결단하도록 했다. [GPNEWS]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기획

“예수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예수교회 회복을 위한 원데이 기도컨퍼런스 열려

한국사회의 세속화와 인본주의가 깊게 드리우며 교회의 본질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몸 된 교회가 위대한 성도로, 거룩한 교회로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예수교회 회복을 위한 원데이(ONE DAY) 기도컨퍼런스’가 지난 5일 열렸다.

복음기도동맹 주관으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위대한 성도 위대한 교회’라는 주제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성남 선한목자교회(담임 김다위 목사) 글로리홀에서 진행됐다.

이번 기도컨퍼런스에는 전국 각지에서 달려온 700여 명과 채널앤써의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온라인으로 3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그동안 다양한 교회 현장에서 예수교회 회복의 비전을 품고 달려온 증인들의 고백을 듣고 간구하며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안승용 선교사(순회선교단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살게 된 그리스도인은 위대한 성도라고 외칠 수 있으며 예수의 핏값으로 세워진 예수교회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왕성하게 이어져 왔다.”고 이날 증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교회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첫 번째 순서 ‘복음과 기도로 세워진 제도권 교회’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눈 오성광 목사(전 호주 시드니 중앙장로교회)는 “한국과 미국, 유럽의 교회에서 신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동성 결혼을 축복하거나 낙태를 지지하는 등 진리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이며 교단 간 갈등과 교회의 연합이 깨지며 교회 내 매관매직이나 세습문제가 비난받고 진리보다는 세상 성공을 좇는 풍조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교회의 위기를 초래한 문제들은 교회 내부의 영적 나태함과 죄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오 목사는 이어 “교회의 본질적인 회복은 복음과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느헤미야기도를 시작으로 24시간 기도하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의 사명을 감당해오며, 이를 통해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게 됐다.”고 그동안 주님이 이끌어오신 시간들을 소개했다.

두 번째 시간을 맡은 송준기 목사(웨이처치)는 “교회론에 관한 책도 쓰고 강의도 했지만, 십자가 복음 앞에 서고 보니 나를 스스로 속인 자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며 “이는 교회 개척을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목회자로서 품위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주님이 깨닫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했다. 그는 이 과정을 통해 “주님이 나의 삶을 예수교회 되게 하셨듯이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복음 중심의 교회 즉, 말씀, 기도, 전도에 집중하는 교회로 변화시킬 것을 믿게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위대한 성도와 위대한 교회는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며, 오직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라면서 “성도들이 매일 예수님을 영접하며 믿음을 지속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분의 날까지 이 사역을 완성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 순서로 말씀을 전한 조성욱 목사(복음가득한교회)는 “군 복무 시절 훈련 중 불발탄 폭발 사고로 죽을 뻔한 상황 속에서 상의 주머니에 넣어둔 성경암송카드가 파편을 막아준 것을 발견하고 군 병원에서 9개월 동안 ‘왜 나 같은 사람을 살려주셨을까?’” 주님께 물었다. 조 목사는 성경을 보며 기도하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뜻은 당대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겠다고 결단하게 됐다. 그는 그 이후 “지난 20년간 100개국 이상에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동안 제자를 찾고, 그 제자를 통해 지역과 나라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교회의 회복은 복음의 회복에서 시작된다.”며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중심으로 전해야 하고, 기도와 성령의 임재를 통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중심 사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마지막 순서를 맡은 김용의 선교사(로그미션 대표)는 먼저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과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 잃고 바벨론 포로 신세가 되어 아무런 희망도, 자비도 구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하나님이 친히 회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셨다.”고 선포했다. 김 선교사는 이어 “오늘도 한국과 세계 교회에서 정체감을 상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에스겔 47장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약속을 통해 죄악이 가득한 성전을 회복하시고, 회복된 성전을 통해 온 세상 인류를 살려내실 것을 약속하셨다.”며 “위대한 예수교회는 영영 왕성할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예수교회 회복이란 말은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이다. 성도는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영과 진리의 사람이다. 성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요 그의 신부다. 위대한 성도가 위대한 교회를 이루고 위대한 교회가 위대한 성도를 낳는다.”며 “빌라델비아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듯이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을 믿고 순종할 때 예수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이 역사를 뒤집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GPNEWS]

❶ 오성광 목사(전 호주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❷ 송준기 목사(웨이처치) ❸ 예수교회 회복을 위한 원데이 기도컨퍼런스 현장 ❹ 조성욱 목사(복음가득한교회) ❺ 김용의 선교사(로그미션 대표). 복음기도신문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교회여 일어나라’ 합창과 ‘빌라델비아교회’ 스킷 선보여

‘위대한 성도가 위대한 교회를 이룬다’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기도컨퍼런스는 합창과 스킷드라마 등의 특별한 순서를 통해, 그 의미를 입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날 헤브론원형학교의 학생과 교사들 70여 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은 ‘교회여 일어나라’의 합창곡을 통해 복음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성도들이 곧 주님의 교회임을 선포하며, 참석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 이날 연주된 곡은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와 영국 CCM 사역자인 크리스틴 게티(Kristyn Getty)의 ‘온 교회여 깨라’, ‘교회여 일어나라’를 하나로 편곡한 곡으로 순회선교단 노현진 선교사가 편곡을 맡았다. 노 선교사는 “교회 회복이라는 주제로 학생과 교사들이 합창을 한다고 했을 때, 먼저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가 생각났다. 또한 ‘온 교회여 깨라’의 모든 가사에 큰 울림이 있던 터에 교회에 대한 메시지와 주님의 마음이 충분히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곡을 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합창 지휘를 맡은 소프라노 안온유 집사(지산교회. 제이오뉴 성악스튜디오 원장)는 “합창을 통해 청중들도 힘을 얻는 시간이지만, 믿음의 증인들과 함께 연습하며 공연하는 과정을 통해 개인적으로 영적인 충전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안 집사는 “이번 집회를 통해 내가 주님의 신부이며 예수교회라는 것을 깨달았다. 눈에 보이는 모든 상황을 주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정말 말씀 앞으로 나가야겠다고 결단하게 됐다.”고 고백했다. 안 집사는 러시아 모스크바 차이코프스키 음악원에서 학사와 석·박사과정을 마치고 귀국, 후학을 양성하며 이주민 학생들을 위한 합창 지도 등 재능기부 활동으로 이웃을 섬기고 있다.

또한 이날 문화예술 선교단체 블루피쉬컴퍼니는 ‘빌라델비아교회’라는 제목의 스킷 공연 예배로 참여했다. 이번 스킷은 미국 오리건주에서 예수를 신실하게 믿던 한 부부가 작은 제과점을 운영하며 복음을 전하다 겪은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담았다. 이들은 빵에 말씀을 넣어서, 케이크에 말씀을 새겨서 복음을 전했다. 어느 날 레즈비언 커플이 웨딩케이크를 주문하자 이 부부는 그리스도인이라며 케이크 제작을 정중히 거절했다. 결국 이들 부부는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고소돼 수많은 재판을 이어가며 사람들의 비난과 협박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동성애자 케이크 제작 거부에 대해 사과하고 케이크를 다시 만들라는 이들의 요구 앞에서 한결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무대를 마치고 내려온 박계환·고상미 선교사는 “이 사람들은 지금도 재판을 하고 있다. 끝까지 예수 이름을 모른다 하지 않고, 빌라델비아교회처럼 신앙을 지키고 있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믿음을 따라 산다고 했을 때, 그런 증인을 보는 것은 큰 위로가 되고 가장 큰 힘이 된다. 이 스킷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는 것이 보시는 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GPNEWS]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사람 풍경 삶의 풍경을 통해 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섬김을 따라가는 **임창완** 선교사 (헤브론선교대학교)

▲ 사랑하는 막내 딸 주연이(좌), 아내 정노아 선교사와 쌍둥이 딸 주은과 주혜와 함께. 임창완 선교사 제공

• 1면에 이어

- 사역 대신 육아를 전담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신가요?

"아내가 최근 셋째를 출산한 이후, 이전에 다쳤던 발목과 무릎에 통증이 생기면서 제가 아이를 많이 돌보고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 쌍둥이는 2020년에 일곱 달 만에 1.3kg, 1.4kg로 태어났어요. 니큐(NICU)라고 하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두 달 정도 치료를 받은 후에 지금까지 재활치료를 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사역이 아닌 아이들과 아내를 돌보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 헤브론선교대학교에는 언제 오셨나요?

"2018년에 왔어요. 제가 2016년도에 복음학교에 참여한 이후,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되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게 큰 즐거움이 됐어요. 성경 지식에 대한 목마름이 있던 차에 성경언어훈련학교를 하면서 더욱 복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복음을 더 잘 알게 되고 성경도 이해가 되는 것 같고, 이것들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공동체에서 살고 싶은 마음도 주셔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1절 말씀을 받고 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사역한 후,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그때부터 제 인생이 좀 많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아빠

-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결혼 7년 만에 아내가 임신했고 당연히 잘 출산할 줄 알았어요. 주변에서 '쌍둥이니까 조심해라. 엄마 돌아다니지 말아라. 무리하지 말아라.' 할 때 '나에게 무슨 일이 있겠나.' 생각했어요. 28주 됐을 때,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빨리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했어요. 경부 길이가 짧아서 출산이 임박했다고요. 급하게 대학병원으로 옮겨 3주 동안 버티다 7개월 만에 출산을 했어요."

- 아이들은 괜찮았나요?

▲ 사랑하는 쌍둥이 딸과 함께. 임창완 선교사 제공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니큐에서 두 달을 지냈어요. 저는 당연히 니큐에서 나오면 선교대학으로 오면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1.3kg로 태어나 2.2kg, 2.5kg 몸무게로 퇴원을 했는데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첫째 아이는 심장에 동맥관, 난원공, 심신중격결손, 심방중격결손과 같은 구멍과 결손 요소가 있어서 수술 여부를 놓고 기도해야 했어요. 둘째 아이는 뇌에 음영이 생겨서 지속 관찰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당시만 해도 저는 아이의 재활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작은 아이를 어떻게 재활을 하는 건지 상상이 안 되잖아요. 아이는 낳으면 그냥 큰다고 생각했어요. 젖을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면 알아서 기어 다니고 뒤집으면서 크는 거 아닌가 생각했죠. 그런데 우리 아이는 뒤집기도 배워야 했고 재활이 필요했어요."

- 신생아의 재활이라는 게 상상이 되지 않는 일이네요.

"첫째 아이는 심장에 동맥관이 막히지 않은 상태로 태어났어요. 보통은 어느 정도 기다렸다가 막히지 않으면 수술을 하게 돼요. 병원 권유대로 바로 수술하지 않고 좀 더 미루기로 했죠. 그러나 더는 안되겠다싶어 수술을 하기로 했는데, 감사하게도 절로 관이 막혔어요. 의사가 막힐 시기가 아닌데 놀랍다고 하셨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둘째 아이는 뇌병변 진단을 받고 몸에서 강직 현상이 발견됐어요. 6개월부터 재활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 육아와 아이의 재활이 병행되는 삶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육아는 엄마가 하는 일이지 아빠가 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저는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남자였어요. 왕자였죠. 바쁘게 뭘 한다든지, 음식을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빨래를 하고, 빨래를 걷어서 개고, 이런 일은 꿈도 꿔본 적이 없어요. 그런 제게 주님은 육아와 함께 아내 섬김도 하게 하셨어요. 복음을 만나기 전에 아내를 잘 못 섬긴 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사실 결혼을 했을 때 저는 준비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누군가를 섬기고 희생해야만 그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걸 지금 배우고 있어요. 정말 그때는 잘 몰랐어요. 제가 테니스를 워낙 좋아해서 새벽에 테니스 치러 나가면 밤에 오고 그랬거든요.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집안일도 안 하니까 갈등이 점점 쌓이는 거죠. 저는 회피형 인간이었기 때문에 약간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휙 도망가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려운 결혼 생활이 이어졌어요. 그제서야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게 진짜 나에게 기쁜 소식인가? 이 위기 가운데서 저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없더군요. 아내가 먼저 복음학교를 했던 터에 그동안 저에게 복음학교를 계속 권했는데, 제가 핀잔을 주면서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너무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학교에 참석하게 됐어요."

갈등 속에서 일어난 복음에 대한 갈망

-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었나요?

"내(옛 자아)가 진짜 죽었구나. 진짜 내가 잘못 살았네. 내가 복음을 전혀 모른 채 하나님을 섬긴다고 살아왔구나. 알게 되면서 복음을 더 알고 싶어졌어요. 저는 대학 때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거라사 광인 같은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고 삶이 확 변했어요. 은혜를 경험하니 이렇게 살면 안되겠다는 마음에 죄를 멀리하면서 빈 강의실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화장실에서도 무릎 꿇고 기도할 정도로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군대에서 방탕한 삶으로 돌아가면서 삶이 피폐해졌어요. 하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해주셨는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게다가 제가 군에 있을 때 어머니가 암 수술을 하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 모든 일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 두려웠어요. 주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서 주님께 제 삶을 드리겠다고 기도했어요. 그때는 나를 드린다는 건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는 것으로 여겼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나를 용서해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죄책감으로 신학교도 가고, 나의 삶을 드리려고 몸부림 친 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붙잡고 계셨다는 것이 복음을 들으면서 깨달아졌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것이었어요. 오히려 힘든 시간들은 저의 못된 것들을 꺾어내심으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것이었고, 하나님이 제 실패한 인생에 함께 계셨다는 사실이 믿어졌어요."

- 복음의 은혜가 크셨네요. 그런 큰 은혜 이후에도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간들을 또 겪게 되신 건데요.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신 건가요?

"둘째 아이가 뇌병변 진단을 받고 나서 장애인증을 받게 됐어요. 장애등록을 하고 나오는데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자녀가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게 그제서야 인정이 됐고, 비로소 본격적으로 치료를 하자고 생각했어요. 아내와 저는 다 복음을 아는 선교사인데도 너무 힘겨웠어요. 쌍둥이를 양육하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이 아이들을 병원에 데리고 다니는 것도 큰 문제였어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아이들 컨디션이 좋아야 되는데, 가장 좋을 때가 자고 일어났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는 동안 무조건 재워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차가 움직여야 계속 자니까 신호등 빨간불을 피해서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길로 다녔어요. 그런데 차에서도 안 자고 울면 치료를 받을 때 아이가 30분 내내 울다가 토하고 자지러지죠. 보이타라는 치료는 강한 치료법이에요. 일단 시작부터 끝까지 울음으로 시작해서 울음으로 끝나요. 저희는 밖에서 대기하면서 울음소리를 들으며 '주님,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만 해요. 치료사가 우리 아이를 도와주는 사람인데도 나쁜 사람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치료실을 데리고 가서 치료사에게 아이를 넘겨주는데 아이가 고통스러워하는 시간이라는 걸 알잖아요. 차라리 치료를 안 받고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시간인 걸 아는데도 아들을 내어주셨구나.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기로 내어주신 그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됐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 조금씩 주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배우기도 했어요."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를 보며 알게 된 하나님 마음

-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셨군요.

"그래도 현실은 계속 버거웠습니다. 당시 헤브론선교대학교에서 휴가를 받고 병원 근처에서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헤브론으로 돌아가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마침 학교에서도 돌아와서 아이들 치료를 하면 어떻겠냐고 하셨죠. 밥먹을 시간이라도 가져야 하지 않겠냐면서요. 저희가 아이들을 차에 태우면서 돌보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다시 돌아와서 또 케어를 하고, 이런 모든 시간 가운데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화장실 가고 밥 먹는 1시간 빼면 뭐 있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오로지 나를 위해 살던 내가 육아와 아이의 재활을 도우며 나를 위해 살 수가 없는 인생이구나를 깨달아갔던 것 같아요. 우선은 학교에 와서 밥을 먹게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서산에 있고, 서울과 용인에 있는 병원들로 매일 운전을 해야 하는 게 어려웠어요. 자녀가 아파서 병원에 가는 걸 귀찮아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몇 년째 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걸 언제까지 해야 하나 힘들었어요. 힘든 마음에 병원에 오가는 차에서 아내와 다투기도 했어요. 제가 인내심이 있어서 아이를 기르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회피형 사람이었잖아요. 육아를 하다가 아이를 버리고 가는 부모들의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았어요. 한번은 병원에서 중학생이 된 아이를 재활시키는 엄마를 봤어요. 아이한테 욕을 하더군요. '내 인생이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지만 '애한테 뭐 저런 말을 하나?'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들었어요. 저도 그만 좀 하고 싶다는 마음이 한참 들 때였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제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 마음이 바뀐 계기가 있었나요?

"주변에서는 아이 밥도 차려주고 설거지도 하니까 진짜 좋은 아버지라는 말을 해요. 복지관 같은 곳에 가면 '쌍둥이 아빠 오셨네.' 하면서 전을 하나씩 더 주기도 하세요. 저도 나름 좋은 아빠가 돼보려고 어떻게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지 주님께 지혜를 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제 인생을 붙잡지 않으셨다면 제 혈기대로 아이들을 망쳐버렸을 거예요." [GPNEWS]

Y.K.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선교 통신

“복음캠프 이후, 복음을 살아내는 삶이 시작된 것 같아요”

인도에서 지난 11월, 복음캠프가 진행됐다. 이번 캠프는 다양한 분들이 참여했고, 영어와 텔레구어 통역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텔레구어를 사용하는 안드라프라데시의 목회자들이 많이 참여했다. 이들은 짧게는 6시간, 길게는 주의 제2의 도시 비자야와다(Vijayawada)에서 12시간을 버스로 이동해야 하는 거리에서도 달려왔다. 그뿐만 아니라 뭄바이에서 1명의 스태프와 5명의 훈련생이, 콜카타에서는 20대 형제가 목마름으로 달려와 복음 앞에 서는 시간을 가졌다.

캠프 초반에는 굳은 얼굴로 앉아, 진행되는 캠프 일정에 불편함을 드러내는 분들도 있었다.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둘째 날이 지나면서 몇몇 목회자들은 집에 가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셋째 날에는 “내가 집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고 고백하는 변화가 있었다. 그중 한 분은 캠프가 끝나고, 밝게 빛나는 미소로 우리 짐을 다 옮겨주며 말했다. “나는 1년 반 동안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캠프를 통해서 다시 웃게 되었습니다.”

▲ 인도에서 진행된 복음캠프에 참석한 훈련생들과 섬김이들이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다. 최영 제공

캠프에 참여했던 다른 분들도 은혜를 나눴다. “죄 곧 나, 나 곧 죄! 나의 옛 사람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아멘!” “나는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나의 새 생명을 봅니다! 감사합니다!” “복음캠프를 통해 상상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리로 배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사십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걷게 하시는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아멘!” 등으로 은혜를 나눠주었다.

뭄바이에서 오신 K 선생님과 5명의 훈련생들은 비행기 연착으로 함께 저녁 식사와 교제를 나누게 됐다. K 선생님은 “인도를 섬기면서 어떻게 하면 영혼들의 마음 중심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면 될 것 같네요.”라고 전해주셨다. K 선생님이 뭄바이로 돌아간 지 며칠 후 메시지가 왔다. “딸이 복음캠프에서 완전 새 피조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핸드폰에서 인스타그램을 삭제하고, 성경과 기도로 살며, 힘들어도 새벽기도를 열심히 나오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 복음캠프에 참여하고 이번 캠프에 스태프로 참여한 시헌 형제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그냥 전화했어요. 무슨 일 있는 건 아니고… 이 말 하고 싶었어요. 저 너무 행복해요.” 서툰 한국말로 고백하는 형제의 고백이 참 귀하고 고마웠다. 전화를 끊고 아직 여운이 채 가시지 않았을 때,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선교사님, 사실 이 말 하려고 했어요. Living the Gospel(복음을 살아내는 삶)… 이제야 시작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동적이었다. 마침 교제하고 있던 지체들과 시헌이의 고백을 나눴다. 다들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처럼 이 땅에 심어지고, 또한 자라고,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 이 모든 일들이 이 땅을 지금까지 섬겨주신 선생님들과 조건 없이 연합하고 섬겨주신 수많은 팀들과 동역자들의 눈물과 수고,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 믿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힘 있게 전진하고 있다. [GPNEWS]

인도=최영 선교사
(순회선교단 서아시아지부)

월드 포커스

파키스탄, 기독교인 보호 가능한 ‘소수자 위원회’ 설립 검토

파키스탄의 기독교인들이 신성모독법 등으로 차별과 박해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연방 장관급 위원회가 소수자 권리 보호를 위해 국가 소수자 위원회(NCM)를 설립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어서 기독교인들의 안전 보장이 기대되고 있다.

크리스천데일리에 따르면, 라나 사나울라 칸 총리 정치보좌관 및 연방 주간 협력부 장관, 차우드리 살리크 후세인 종교부 장관, 아잠 나지르 타르르 법무부 장관, 아산 이크발 연방 기획부 장관이 포함된 장관급 위원회는 종교 간 조화 정책과 종교 관용 증진을 위한 조치들을 검토했으며, 종교부에 정책 최종 초안을 1주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위원회가 승인하면 이 정책은 연방 내각에 제출될 예정이다.

지난 12월 4일 이슬라마바드 종교부 회의에서 타르르 법무부 장관은 법안의 신속한 완성을 강조하며, NCM이 장관의 압력이나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독립해야만 소수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4월 2일 힌두계 여당 의원 라메쉬 쿠마르 반크와니가 NCM 법안 2024를 국회에 제출한 후, 이 법안을 검토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했다.

파키스탄 소수자 권리 위원회의 회원인 AH 나이야르 교수는 “NCM은 파키스탄의 국가 인권 위원회, 아동 권리 위원회, 여성 권리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국회 법안을 통해 설립돼야 하며, 독립적인 권한과 강력한 법적 기반을 가져야만 소수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Pexels의 Aa Dil

파키스탄의 첫 NCM은 2020년 5월에 설립돼 2023년 5월에 임기를 마쳤지만, 법안 처리의 지연 때문에 후속 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아 소수자 보호를 위한 공식 기구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상태다.

한편, 파키스탄 대법원은 별도로 2019년 1월에 쇼아이브 수들 박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소수자 위원회를 설립했지만,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이에 지난 2023년 8월 16일 자란왈라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공격 이후 열린 소수자 권리 회의에서 수들 박사는 기독교인에 대한 공격을 비롯해 소수자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대법원의 명령이 이행되지 않는 이유로 정부 관료들의 무관심과 구조적 문제를 비판했다. 그는 소수자 권리 개선이 어려울 수 있음을 우려하며, 상황을 변화시키려면 사회와 정부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강조했다.

펀자브주의 기독 의원인 이자즈 어거스틴은 대법원에서 만든 기존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수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법적 권한과 독립성을 가진 NCM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1990년 이래로, 임시 NCM이 종교부를 통해 행정 명령으로 설립됐지만, 이 위원회들은 제한된 권한, 독립성 부족, 충분하지 않은 자원으로 인해 정책 개혁이나 소수자 권리 침해 해결에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파키스탄의 비무슬림 인구는 약 2억 4000만 명의 총인구 중 약 3%를 차지한다. 기독교를 포함한 소수 종교 공동체는 거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겪고 있으며 극단주의 그룹의 공격을 받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들은 사형이 가능한 신성모독법의 표적이 되는 일이 잦다.

파키스탄은 오픈도어 선교회의 2024 세계 감시 목록에서 기독교인이 살기 가장 어려운 나라 중 7위를 차지했다. [GPNEWS]

복음의 능력

온갖 종류의 바보들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바보들이 있다. 그중에는 유식한 바보가 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회개하지 않으면 유식한 바보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바보들 중에는 무모한 바보도 있고, 타산적인 바보도 있다. 무모한 바보들의 인생 좌우명은 “짧은 인생 실컷 즐기고 보자!”이다. 한편 소위 타산적인 바보들은 무모한 바보들에 비해 좀 더 신중하게 삶을 산다. 그러나 그들 역시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물질이 진정한 보화인 양, 재물을 쌓는데 온 힘을 쏟는다. 아! 여기서 나는 인생의 황금기를 허비하는 죄인들인 젊은 바보뿐 아니라 늙은 바보도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노인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되어야 마땅할 백발이, 너무나 자주 바보의 모자가 되고 있다. 그리스도 없이 여전히 죄를 지으며, 영원의 세계를 무시하고 소홀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체 뭐라고 해야 할까? [GPNEWS]

‘네 주께 굴복하라’
(C.H. 스펄전)에서 발췌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심판의 때를 살아가는 믿음 (1)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초대교회 시절인 63년경, 네로 황제는 로마시의 절반을 불태운 뒤 그리스도인들이 화재의 원인이라고 했다. 이런 모함으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인들에게 공공의 적처럼 미움을 샀다.

영화 사도 바울의 배경이 바로 이 시기다. 로마인들은 산 사람에게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이고,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들에게 잡아먹히도록 했다. 음란하고, 포악한 자극에 물든 로마의 귀족들과 시민들은 어린아이와 남녀 성도들을 죽이는 끔찍한 장면을 보면서 즐겼다.

이 혼란 중에 로마를 버리고 도망가느냐? 아니면 죽음 앞에 놓인 성도를 위해 남아야 되느냐? 바울은 고민했다. 바울과 성도들은 감옥에 갇혀 있었다. 죽을 것 같은 공포와 두려움으로 이사야 53장의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으며 죽음 앞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매일같이 죽음의 소식이 계속됐다. '누가 여기서 믿음을 지키고 누가 이 고난 속에 살아남겠는가.' 절박한 때였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를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보냈다.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한 끼 밥이 아니었다. 잠깐 고난을 모면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필요했다.

한국교회에 위기라는 말이 등장한지 오래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일곱 교회 중 라오디게아교회는, 겉은 멀쩡하고 세련되게 꾸몄는데 영적인 위기는 심각했다. 로마시대의 험악했던 상황보다 훨씬 더 심각한 영적인 위기를 맞고 있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네 눈에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라.'고 말씀하신다. 또 주님을 마음 문밖에 몰아낸 채로 '네 영혼이 어떻게 말라가고 있는지, 네가 얼마나 깊은 병에 걸렸는지, 네가 얼마나 소망 없는지 보라.'고 경고하셨다. 상황이 어려워질 때 진짜 위기라며 두려워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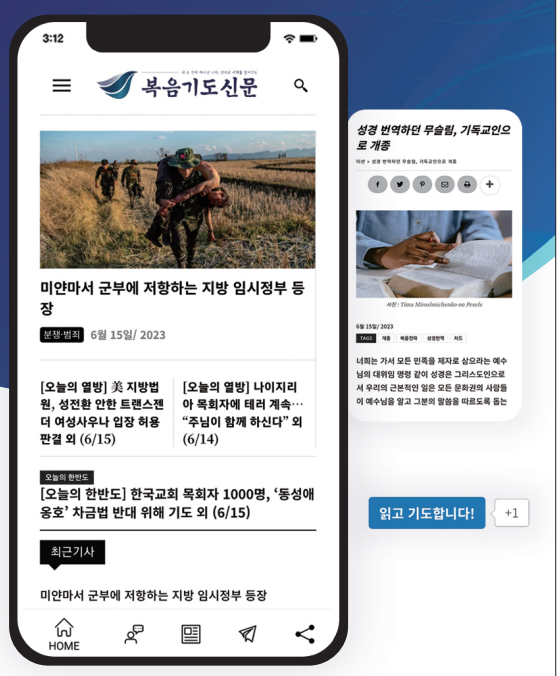
일러스트=A.I 제작. Midjourney

하나님 앞에 살던 사람들이 위기의 때 생명줄처럼 붙잡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사형 집행을 기다리며 투옥돼 있는 바울에게 구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한국교회와 한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 다음세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에게 다른 무엇이 위로가 되겠는가? 오직 주님만이 위로이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던 그들과 같이 우리의 영혼도 주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 주님의 말씀이 결론이다. (2018년 11월) 〈계속〉 [GPNEWS]

김용의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내 손 안에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app
복음기도신문



복음기도신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해요!!

GPM 복음기도신문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
'복음기도신문'을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기도24·365 복음기도미디어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느헤미야 기도정보 Ver.9
eBook

6종으로 구성된 느헤미야 기도정보 Ver.9는
복음을 주제로 하여, 6가지의 영역을
기도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2023 긴급기도정보 *별도구매

최근 열방에서 일어난 긴급한 기도제목을 담은
2023 긴급기도정보 6종(5권) eBook은
느헤미야 기도정보 Ver.9 eBook과 함께
사용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교보문고·예스24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환자의 영육을
돌보실 분
함께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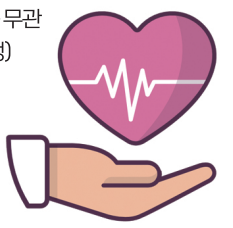
선교적 존재로서 예수님의 제자되어
환자의 영육을 돌보실 분! "함께 해요!"

모집

1. 삼성초대교회 부교역자
(목사 전도사 선교사 평신도사역자 등 무관
급여: 280만 기준-근무시간따라 조정)
- 삼성연합의원 원목 겸임

2. 간호조무사
(경력자 우선 채용, 급여 280만)

3. 연수원 관리 소장
(경력자 우선 채용, 급여 300만)



문의

삼성연합의원 · 삼성초대교회 ☎ 010-8528-3217
숙식 · 근무 일 조정 가능합니다 ☎ 010-3705-9188

삼성연합의원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820

믿음의 삶

이제는 외모를 꾸미지 않고 말씀을 봐요

청년시절의 나는 교회 찬양단에 속해 있으면서 주일 아침예배 찬양, 금요철야와 특별새벽기도회를 섬기고, 기회가 될 때마다 아웃리치를 가고, 청년부 리더로 열심 있는 교회 청년이었다. 그런데, 나의 실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더 돋보이는데 열심 있는 우상숭배자였다.

언제부터인가 나 자신을 꾸미는데 내 마음과 정성과 목숨을 다 바쳤다. 돈과 시간을 투자하며 나를 꾸몄다. 회사 일로 해외 출장을 갔을 때는 한국에 없는 디자인의 옷이나 화장품, 가방들을 사는데 시간과 돈, 마음을 쏟아부었다. 이러한 일이 잦아지면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충족시켜야만 했다. 정말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붓는 것 같았다.

그러다 복음학교에 다녀오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안 꾸며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상했지만 자연스럽게 꾸미는 것들이 모두 멈춰지고, 여러 신앙훈련을 받고 나서 한 선교단체에 헌신하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무엇을 살 것도 없었고, 필요도 없는 것들이 더 많아졌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더 초라하게 보일 때 주님이 높임받는 것 같아 좋았다.

선교사로 헌신하며 몇 년 지난 어느 날, 넉넉한 재정이 허락됐다. 주위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기보다 나를 세련되게 보이게 하는 옷을 구매했다. 여러 번 반복됐다. 양심에 찔리기 시작했

일러스트=고은선

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나의 정욕을 채운 옷이라는 생각에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러고 나서도 반복되면, 가위로 옷을 찢어서 버리기도 했다. 의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되지 않아서 괴로웠고, 두려움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답은 잘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지 못했다.

어느 날, 한 말씀이 내 심령에 정확하게 들렸다. '나는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너를 의롭게 하기 위해 부활했어! 십자가는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너를 의롭게 하시기 위한 것도 포함이 된거야! 그 십자가로 넌 의롭게 되었어!' 이것은 내게 '행위로 너의 의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믿으면 돼!'라는 외침 같았다.

이미 알고 있었고, 수없이 들었던 복음의 진리가 내게 실제가 되었다. '예수 죽음 내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게 흔들리지 않는 터가 되었다.

그때 왜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의 터가 흔들렸을까? 오랜시간 생각해 보았다. 주님이 알게 해주신 것은 내가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을 존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부끄럽지만, 성경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를 하나의 옵션처럼 생각해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새 생명을 얻은 자에게 말씀과 기도는 양식이요 호흡이라고 배웠지만, 나는 새 생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써 먹고, 호흡하지 않았다. 힘써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견고하게 서 있지 못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이제는!!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말씀과 기도)를 매일 취하기에 힘쓰기 시작했다. 나를 교회로 세워가시는 주님의 열심을 찬양한다. [GPNEWS]

다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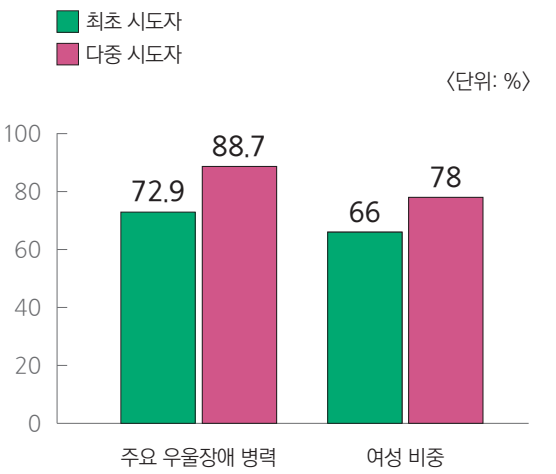
데이터로 보는 한국

다중 자살 시도 청소년, 심각한 정신 건강 겪어

국내 청소년 자살 시도자 중 다중 시도자(반복 시도자)가 최초 시도자보다 더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중 여성의 비율이 높다. 가톨릭의대 의정부성모병원 정신의학과 이경욱 교수 연구팀이 대한의학회지 최신호 온라인판에 게재한 '10년간의 자살 기록을 기반으로 한 청소년 다중 자살 시도의 위험 요인'에 따르면, 최소 2주 이상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 흥미 저하, 식욕과 체중 변화, 수면 장애, 무가치감, 피로, 자살, 사고 등으로 진단되는 주요 우울장애(MDD) 병력을 가진 비율은 다중 시도자(88.7%)가 최초 시도자(72.9%)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최초 시도자의 여성 비중은 66%, 다중 시도자의 여성 비중은 78%로 집계돼, 반복적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 여성 청소년의 비율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자살 행동 관련 요인 비교

(최초 시도자와 다중 시도자의 차이)



〈자료: 가톨릭의대 의정부성모병원 정신의학과 이경욱 교수 연구팀〉

기도 |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이며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는 지혜를 청소년들에게 허락해 주소서. 주께서 주신 삶을 가볍게 여기도록 만드는 사탄의 속임을 파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불된 예수 생명 짜리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 세대로 회복하소서. [GPNEWS]

북한 부흥을 위하여

北 군인 어머니 "파병지에서 기회 생기면 자유 찾아가거라"

한반도에서 지금 가장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개인의 어떤 자유도 없는 북한 주민과 그 땅을 떠난 탈북민을 빼놓을 수 없다. 이들의 인권회복과 진정한 부흥을 소망하며 기도하자. 〈편집자〉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 새 조약 체결을 발표한 지난 5일, 북한 정권에 저항하는 반체제 활동 조직 '새조선'이 아들을 조선인민군에 입대시킨 한 북한 어머니의 편지를 공개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이 편지는 조선인민군에 입대한 아들에게 보내는 내용으로, 어머니는 아들의 생사와 소재를 알 수 없는 무력감을 토로하며,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다는 소문에 대한 혼란과 답답함을 드러냈다. 편지에는 "지금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에서 전쟁을 하는데 우리 군인들이 싸우러 갔다는 소문이 돈다. 너의 소식을 알아보고 싶어도 (중략) 그 무엇도 알 수 없는 이 부모의 무능함이 너무나도 원망스럽다."고 적혀 있다. 편지 후반부에는 "그곳(파병지)에서 너의 마음이 많이 괴롭고 삶의 자유를 원한다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부모를 걱정하지 말고 너만의 길을 찾아가거라."라는 메시지도 담겼다. 새조선은 편지 작성자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 편지가 북한 내부에서 전달된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군 총참모부 작전국 특수부대에서 복무했던 이현승 글로벌피스재단 북한전략 수석위원은 RFA에 "대부분의 북한 어머니들의 심정을 대변하지만 보낼 수 없는 편지"

▲ 판문점에서 바라본 북한 측 군인들이 군사분계선에 서 있다. pcamp, CC BY-SA 2.0

라며 "만약 그 편지를 실제로 보내면 '아들에게 자유를 찾아라'는 말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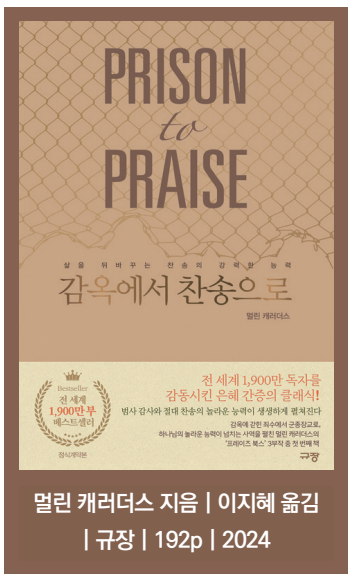
'새조선'은 북한 내 반독재 세력과 연대해 북한 정권 종식을 목표로 활동 중이며, 북한 내부의 목소리를 외부에 알리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기도 | 자식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북한 군인의 부모님의 애타는 마음에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주십시오. 파병 나간 군인과 부모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들려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참 자유,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 복음의 소망을 품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GPNEWS]

뷰즈 인 북스 Views in Books

멀린 캐러더스 〈감옥에서 찬송으로〉

“약한 것을 찬양하라”… 59개 언어로 번역된 믿음의 고백



멀린 캐러더스 지음 | 이지혜 옮김 | 규장 | 192p | 2024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 5:16~18) 이 책을 통해 모든 것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한 증인을 만났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만이 아니라 도무지 감사하기 어려운 그때에도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고백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게 되었다. 그리고 나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너무나도 단순, 담백한 고백이 내 영혼에 울림이 되었다. “하나님,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1978년에 출간된 이 책은 59개 언어로 번역돼 1900만 부 이상 판매되어 많은 독자의 삶에 은혜를 끼쳤다. 저자는 미국 기독교서점협회 베스트셀러 10위 안에 세 권의 저서를 동시에 올린 최초의 작가이기도 하다. 멀린 캐러더스의 첫 번째 책인 ‘감옥에서 찬송으로’가 최근에 다시 출판돼 말로만 전해 듣던 그 은혜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이 책 제목의 ‘감옥’은 ‘창살 있는 감옥’이 아니라 ‘환경의 감옥’을 뜻한다. 그래서 이 책은 가장 불가능할 것 같은 그 환경에서 감사와 찬송으로 어떻게 승리를 누리는지를 말해주는 책이다.

열두 살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사춘기에 접어든 그는 하나님이란 존재에 분노하며 등을 돌렸다. 어린 시절부터 온갖 일을 하며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은 탓인지 멋지게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는 것이 꿈이라고 할 정도로 겁 없이 살았다. 해외파병을 기다리며 군 복무하던 시절, 짜릿한 흥분과 자극을 찾아 탈영하여 강도짓을 하다가 결국 감옥생활을 했다. 소원했던 대로 ‘전쟁에 참전하고 싶다.’는 말로 그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됐고 해외파병에 오르게 됐지만, 도박과 암거래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어 부자가 되어 미국으로 돌아갔다. 가진 돈으로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이제 막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할 그때,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의 삶에 찾아오셨다.

결국 하나님은 모험과 위험을 좋아하던 자를 목회자로 변화시키셨고 범죄자, 도박꾼, 암거래상이었던 그를 설교자로 세우셨다. 그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육군 군종장교가 되어 부대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던 어느 날, 이 책 제목과 같이, 삶의 어떤 순간을 맞이할지라도, 심지어 낙심되는 순간조차 감사와 찬송으로 바꾸는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수없이 경험하면서도 동시에 그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면서 낙담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성경 말씀에서 빛과 같이 해답을 찾았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감사’였다. 그래서 그는 범사에 “기뻐하라,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감사와 찬송의 능력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아버지, 저는 기쁩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이 이 일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이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님으로 기뻐하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도록 그를 훈련시키셨다. 그는 이처럼 허락된 일들을 통해 감사와 찬송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었다.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두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약한 것을 찬양합니다.” 수많은 상황 속에서 오히려 감사로 나아가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셨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믿음으로 감사하니 무엇보다 그의 내면이 기쁨으로 가득 찼고, 그를 낙담케 하려는 적의 화살은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의 기쁨을 관통할 수 없었다. 이 책은 끝으로, 삶에서 경험하는 찬양의 능력을 제시하며, ‘내가 찬양했으니까, 내가 감사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 주세요.’라는 불순한 동기와 숨겨진 속셈을 걷어치우라 말한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말이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을 읽다가 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남편에게 불편한 다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제 남편의 다리가 아파서 감사합니다. 제 딸이 약해서 감사합니다.” 기도해 왔던 모든 것들을 위해 하나씩 되새기며 감사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내 안에 눈물이 터져 나왔다. 나의 연약함도 감사! 실패해도 감사! 아픔에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다시 일어설 수 있어서 감사! “저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던 기도제목이 오히려 감사가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임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더 이상 원수가 공격할 수 없도록, 고통에서 기쁨으로 바꾸시는 은혜! 가장 불가능한 감옥같이 여겨지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믿음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그 믿음으로 매 순간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시옵소서! [GPNEWS]

정준영 선교사

청년선교 Youth Mission

“미국의 마약중독자, 동성애자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청년 선교사들의 생생한 좌충우돌 믿음의 순종기를 담은 [청년 선교]. 기독교인 청년을 찾아보기 어려운 지금, 복음과 운명을 같이한 20대 청년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 곳곳에서 매주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현장을 소개한다. 〈편집자〉

미국으로 아웃리치를 가게 되었습니다. 11월 6일, 저는 설레는 마음을 품고 부르신 미국 땅으로 출발했습니다. 이번 아웃리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시 105:1~2) 이번 아웃리치는 이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일정 중 저희 팀이 샌프란시스코 미션 스트릿(Mission street)에서 영어와 스페인어가 적힌 전도용 팻말을 들고 찬양하며, 중간중간 제 개인의 간증과 말씀 구절들을 선포했습니다. 곳곳에서 마약에 찌든 분들이 보였습니다. 26살의 마이크(Mike) 형제를 만났습니다.

자신은 마약을 끊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끊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그를 빙 둘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님만이 그 영혼을 그 자리에서 일으켜 주실 수 있음을 고백하며, 그 청년을 만나달라고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 후 눈을 떠보니, 그분은 울고 있었습니다. 형제의 눈물의 의미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그 영혼을 끝내는 구원해 주시길 구하며 주님께 그분의 영혼을 의탁해 드렸습니다.

오후에는 카스트로(Castro)라는 동성애 거리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동성애를 의미하는 대형 무지개 깃발이 휘날리고 있었고, 곳곳에 작은 깃발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제가 속한 팀은 큰 무지개 깃발 아래에서 찬양을 부르며 예배했습니다. 저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일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처럼 구더기와 벌레 같은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길 구했습니다.

다음 날은 노숙인 사역을 하시는 이순금 목사님과 윤형식 집사님 부부와 함께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며 음식과 전도지를 나눴습니다. 이 목사님 부부는 주님의 부르심으로 수년이 넘게 그 지역의 노숙인들에게 전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고백과 순종하신 걸음을 들으며 참 귀하고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영혼들을 친히 찾아가 만나주셨던 것처럼 숨어서 지내는 그들에게 찾아가 음식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순종하는 당신의 사람들을 열방 곳곳에 두셨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웃리치 기간 동안 여러 번 저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본 영혼들과 다름없이 소망 없던 자였는데, 그런 나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소망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세우신 주님의 열심을 보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계획대로 저 같은 자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열심을 보며, 아웃리치 동안 만났던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GPNEWS]

▲ 샌프란시스코 동성애 거리. 정희민 제공

정희민 선교사
(헤브론원형학교 용감한정예병 파송본부 제공)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 651001-01-343666
예금주 :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24. 11. 20 ~ 12. 10 (가나다 순)

개인 고개봉 권영기 권혜령 김득기 김선정 김수미 김신애 김애심 김혜신 박경희 박성규 박신희 신용선 안민자 안석문 안수경 오세주 오세희 유영권 유재선 이동엽 이보희 이삼연 이상현 이영선 이영옥 이은주 이종훈 이진희 이향은 장옥경 정범영 정옥영 정요한 조복형 조형광 최근희 최점옥 홍고집 홍찬일 황일문 무명

교회 및 단체 강서침례교회 겨자씨선교회 고현교회 대구서현교회 목자교회 문광교회 복음가득한교회 복현교회 샘물교회춘천 스테파니 시흥교회 안양그루터기교회 열매교회 오예그교회 의정부성은교회 주나임교회 참좋았더라교회 춘천중부교회 헵시바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5014-0406~8
E-mail: gpnews@kakao.com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김강호, 인쇄인:장용호[(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